

<2021년 2월 15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좋은 돌을 분별하는 자를 보내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나를 속지 않게 도우시고, 내가 찾지 못하는 좋은 돌을 찾아서 원하는 것을 얻게 해 주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이시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한 몸이라 속지 않고 해됨이 없게 하셨도다.
2. 하나님과 성령님이 사랑하는 자를 자신같이 도우심은 그를 통해 시대의 뜻을 이루시고, 모든 자를 돕고 구원하고 휴거시켜 영원한 나라를 얻게 하려 하심이로다.
3.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살펴 아시기에,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어 그를 믿는 자와 같이 쓰게 하셨도다.
4. 아름다운 소나무는 시대 천 년을 상징하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에 심어 웅장하게 하셨도다. 사역자들을 통해 이 민족에 좋은 소나무들을 보내시고, 찾아오게 하여 심게 하시고, 아름다움과 신비함이 천 년 동안 가게 하셨도다. 전에 하나님과 성자가 하나님의 자연성전을 만들기 위해 이미 어린 소나무들을 보호하고, 가꾸고, 키우게 하심으로 수천 주의 소나무들을 예비하시고, 이곳만이 더욱 빛이 나게 하셨도다. 그 소나무들이 거목이 되므로 하나님의 자연성전은 푸른 숲과 대(大)정원으로 꾸며졌나니, 동산에 새들이 모여들어 거하게 하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도다.

5.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행하시니, 자연성전이 만물들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는도다. 보는 자들이 지상의 천국이라고 말들을 하게 되었으니, 이를 깨닫고 행하는 자들은 참으로 복있는 자들이로다.
6. 하나님과 성령님은 주를 통해 사람들을 공의롭게 대하며 행하시고, 각각 행위대로 공훈과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도다.
7. 해가 뜨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자연성전을 두셨으니, 그 구조와 형상과 모양이 하나로 이루어졌도다. 깨닫고 보는 자들이 하나님이 만들고 행하셨다고 말들을 하였으니, 이는 땅에 있는 자들로 주를 통해 시인케 하심이로다.
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와 정녕코 행하시고, 그를 통해 증거하시는데도다.
9. 과거에 전지전능하신 존재자 삼위일체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도다.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아직도 산 너머 그들 속에서 살아가나니, 이는 시대 보낸 자를 믿지 않고 불신하고 미워한 연고니라.
10. 자기가 가야 할 기다렸던 시대를, 무지와 고집과 교만으로 외면하고 버린 자들은, 자기 행위로 인해 가인의 길로 간 자들이로다.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님은 그들을 사망의 깊은 어둠에 던지시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과 주를 믿게 함으로 뜻을 이루고, 이 상세계를 행하시는데도다.

11. 하나님과 성령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시고,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사랑으로 휴거를 이루셨도다. 주는 따르는 자들을 다스리고, 주를 따르는 자들도 그의 지체가 되어 살피는도다. 주의 영광과 사랑과 의의 권세가 영원토록 가리로다.
12. 사람마다 자기 마음을 만족하게 할 자가 없나니, 자신이 깨닫고 행해야 하느니라. 저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행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친히 자신이 만족하도록 행함으로 자신도 주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만족이 충만케 할지이다.
13. 설교를 들어도 만족하지 않음은 설교가 자기 마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로다. 자기 마음은 자기가 아나니, 그것을 위해 행하고 말하면 자기가 만족하게 되느니라.
14. 자기 일은 자기가 행해야 마음에 들게 행하나니, 먹는 것도 자기가 만들어 먹으면 마음에 들고, 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놓으면 자기가 만족하느니라.
15. 자기도 만족하게 하고, 사람들도 만족하게 하고, 주도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과 성령님도 만족하게 해야 하도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도 주와 더불어 행하지 않는 자는 인정할 수 없나니, 모두 만족하고 충만하게 행해야 함이로다.
16. 사람이 모를 때는 아주 상식적인 일이라도 그 순간에는 모르고

행하니, 책망하기보다 심정 상한다고 하기보다 가르쳐 주어라.
사람은 인식하지 못하면 생각이 전혀 안 나니, 원하는 자가 말을 해 주고 이해를 시켜 주어라.